

환경교육 기반 강화와 학교·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 제안

세상을 바꾸는 사람, 사람을 바꾸는 환경교육



환경교육 기반 강화와 학교·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 제안

세상을 바꾸는 사람, 사람을 바꾸는 환경교육

Contents

Part

1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 06 연구배경 및 방법
- 08 환경교육 활성화의 제약사항

Part

2

정책제안



- 12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 15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 20 환경교육 기반 강화

Part

3

지역 특성화 환경교육
사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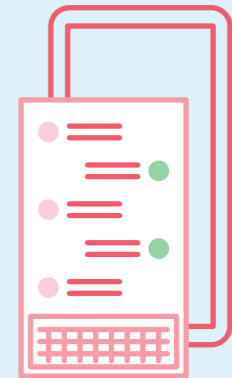


- 28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제안
- 29 지역 내 환경교육 거점기관
(광역환경교육센터)

Part

4

청소년, 청년들의
정책 제안



- 32 청소년·청년운영위원회 소개
- 34 우리들의 목소리
- 37 우리들의 정책제안

Part
1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의 필요성 및 방법



연구배경 및 방법

01

1 연구배경

가 환경교육 운영 현황의 전반적 검토 필요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교육법) 제25조(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 내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지원 중
- ▶ 전국 지역(광역·기초)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 양상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 수행 역할과 기능의 편차와 제약이 발생
- ▶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재정 현황과 운영 사례 연구를 통해 객관적 평가와 효율적 투자·지원 방향의 검토 필요

표1.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현황

합계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경남	대구	울산	
17	-	1	1	2	1	1	1	1	-	3	-	1	1	1	1	1

※ 15개 시·도에 17개 광역환경교육센터 지정
 ※ 서울, 전북, 광주 3개 시·도는 광역환경교육센터 미지정

나 환경교육 활성화 제한요인 파악과 지역 자치 환경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및 특성화 사업 발굴

- ▶ 지역 자치 환경교육의 실현을 위해 환경교육 활성화 제한요인의 파악과 효과적 해소방안의 모색 필요
- ▶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기관 및 NGO의 역량개발과 활발한 교육·홍보 활동의 전개에 필요한 지원정책의 발굴 필요
- ▶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특성화 사업 발굴 필요

2 연구방법 권역별 워크숍 개최와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의견수렴

- ▶ 워크숍 기후위기 시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발굴 워크숍
- ▶ 개최목적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
- ▶ 참석자 지자체 및 교육청 공무원, 광역·기초 환경교육센터 관계자, 지역 환경교육단체(NGO) 등 총 205명 참석
- ▶ 개최일시 권역별 워크숍 개최(총 4회/11~12월 중)

표2.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발굴 워크숍 일정

회차	권역	지역	참석자	일자 및 장소
1회	호남권	전북, 전남, 광주, 제주	23명	11월 18일(금) / 여수청소년수련관(전남 여수)
2회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41명	11월 25일(금) / 논산문화원(충남 논산)
3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48명	11월 29일(화) / 레스트호텔(경기 김포)
4회	영남권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93명	12월 1일(목) / 한려해상탐방원(경남 통영)



호남권 워크숍(11.18)



충청권 워크숍(11.25)



수도권 워크숍(11.29)



영남권 워크숍(12.1)

환경교육 활성화의 제약사항

02

1 외적 요인

- > 환경학습과 교육에 대한 관심의 부족
- > 입시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입시와 무관한 환경교과와 내용에 대한 무관심
- > 환경교과 전담교사 임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
- > 교원양성대학의 환경교육 전공폐지로 교육전문가 부재 우려
- >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의 어려움
- > 관리자의 관심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관료주의의 구조적 문제
- > 영리 목적 이익집단의 개입과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자원 분산

2 내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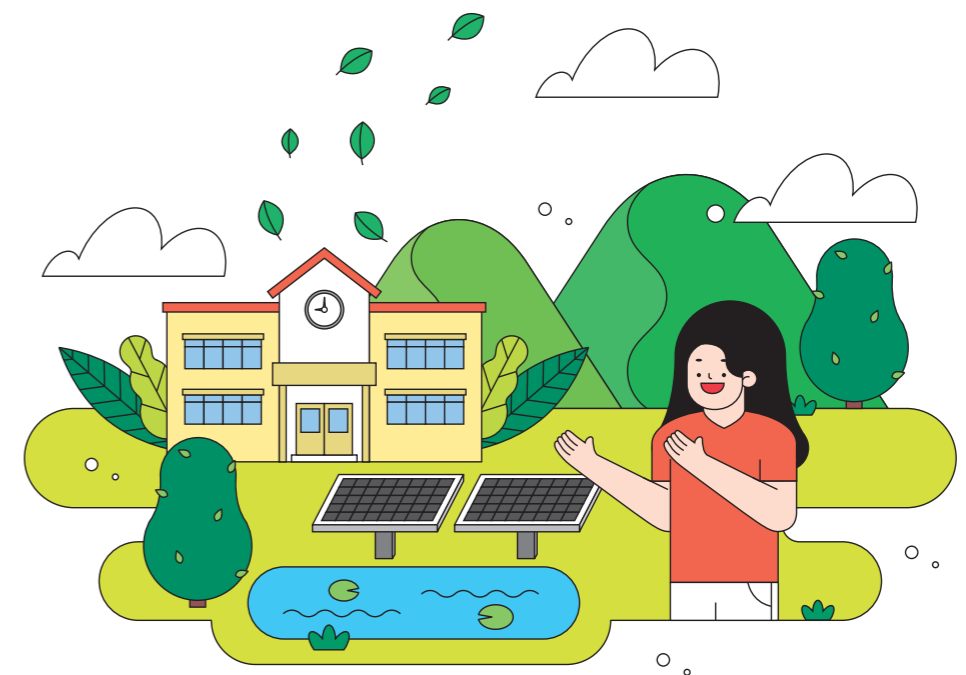
- > 환경교육전문가로서 역량 부족
- > 환경교육사 사후관리의 부족과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
- > 교육의 질보다는 실적 위주의 교육으로 질적 수준의 발전 정체
- > 지자체 및 교육청 내 환경교육 전담 인력 및 예산의 부족
- > 환경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정책 변화

3 교육기관 및 관계부처

-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부족으로 환경교육사 취득의 어려움
- > 20~30대 청년세대에 부담스러운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수강 비용
- > 광역센터가 없는 지자체에서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가 어려움
- > 국가 및 지자체별 환경교육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

4 필요자원

- > 조례제정 및 예산지원
- > 관리자 대상 환경교육 시행
- > 환경교육 통합 시스템(플랫폼) 구축
- >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역할 증대
- >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될 수 있는 장 마련
- > 전문인력 양성 이후 지속적 역량개발 지원



Part
2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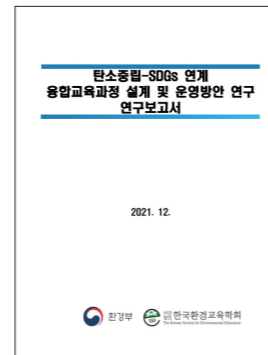
정책제안



교육과정 내 환경교육 확대 및 실시



- 교과 연계 및 분산 교과형 환경교육에 대한 흥미 유발
- 타교과 교육과 접목한 환경교육으로 환경 학습시간 확보



학교 교육과정 연구(2021)

가 제안배경

- ▶ 청소년의 환경 인식조사에 따르면 환경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내신이나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가장 높음
- ▶ 학교 수업에서 타 분야 교육과 환경교육을 연계함으로써 흥미유발과 함께 생애 주기 내 필요한 교육 이수 시간 최소화

나 제안근거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초등학교, 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실시의무 -'22. 06. 10.)

다 제안방향

- ▶ 초등학교, 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에 따른 환경교육 필수로 입시에 도움이 되지않는 환경교육을 수업을 추가로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입시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에 활용

라 제안사항 및 개선방안

역할	담당기관				
	정부부처	국가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기타(모두)
교육과정 재구성 예산 지원	○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 및 업무 추진		○			
교육과정 재구성 활용 및 수업 추진					○

마 기대효과

- ▶ 환경교육을 입시교육에 접목함으로써 환경교과 미선택 문제해결

교사 환경교육 연수 활성화



- 초등·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
- 환경교육 전공 교사 양성 시간 확보



교사환경교육 연수(2022)

가 제안배경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3년 초등·중학교 환경교육 의무화 시행
- ▶ 그동안 환경교육 전공교사보다는 인접학문(지리, 지구과학 등) 교사가 가르치는 경우 다수
- ▶ 환경교육을 위한 전공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교사의 역량 강화로 환경교육 수업의 질 향상 필요

나 제안근거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초등학교, 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실시의무 -'22. 06. 10.)

다 제안방향

- ▶ 단기간 휴직을 통한 일정 환경교육 연수 기간 부여
- ▶ 교사가 학습에만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교육을 위한 지식을 습득

라 제안사항 및 개선방안

역할	담당기관				
	정부부처	국가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기타(모두)
교사 환경교육 연수 단기간 휴직 활성화	○				
환경교육 연수 장소 및 프로그램 제공			○	○	
환경 전공 교사 확대 양성을 위한 정원 확보	○				

마 기대효과

- ▶ 기존 교사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 및 국민으로서의 환경학습권 보장
- ▶ 환경교육 의무화 이후 발생한 부족한 환경교사 양성기간 확보

학교-환경관련시설 체험학습 활성화



- 환경시설 견학을 통한 환경시설 특징 파악
- 환경에 대한 다양한 경험으로 학생의 진로 결정 보조



수도권매립지공사 견학(예시)

가 제안배경

- ▶ 학생들의 환경교육 관련 체험학습은 습지, 텃밭 등 생태적 접근의 체험학습 경우가 대부분
- ▶ 환경에 대한 공학적 접근을 추가하여 환경의 다양한 분야 경험 제공 필요

나 제안근거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초등학교, 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실시의무 - '22. 06. 10.)

다 제안방향

- ▶ 환경교육 수업 시간 활용 물재생센터(폐수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견학
- ▶ 공공부문 불가 시 비슷한 규모를 갖춘 1~3종 사업장 견학 추진

라 제안사항 및 개선방안

역할	담당기관				
	정부부처	국가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기타(모두)
학교 환경교육 수업 내 견학(체험학습) 과정 편성	○				
학교 대상 견학 프로그램 제공			○		
기업-학교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			

마 기대효과

- ▶ 책으로만 보던 시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흥미 유발
- ▶ 다양한 환경시설을 경험함으로써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유용 → 미래 환경공학도 양성

지역별 환경교육활동가 워크숍 추진



- 지역별 환경교육 교류의 장 마련으로 소통
- 환경교육가 역량강화를 통한 환경교육의 질 향상



지역별 순회 워크숍

가 제안배경

- ▶ 지역 내 환경교육가 소통창구 미비로 소통의 장 필요
- ▶ 정보전달 및 역량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필요

나 제안근거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다 제안방향

- ▶ 지역 및 권역별 조례제정과 예산지원을 통한 주기적인 워크숍 추진
- ▶ 워크숍 참여를 강사자격요건 및 교원연수 승진가점에 반영

라 제안사항 및 개선방안

역할	담당기관				
	정부부처	국가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기타(모두)
지역별 조례제정 및 예산분야 지원	○				
역량강화분야 지원		○			
지역 내 환경교육가 인력풀 관리 및 제공			○		
지역 내 환경교육가 인력풀 관리 및 제공				○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가 참여					○

마 기대효과

- ▶ 지역 내 환경교육가 소통으로 환경교육 활성화 기대
- ▶ 정보공유 및 역량강화를 통해 환경교육 질 향상 기대

환경교육주간 지역별 확대 실시



- 환경교육주간(6.5. 환경의날 포함 1주) 지역별 확대를 통한 환경인식 제고
-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 기대



환경교육주간

가 제안배경

- ▶ '22년 제1회 환경교육주간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
- ▶ 환경교육주간 행사를 알리고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추진

나 제안근거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환경교육주간)

다 제안방향

- ▶ 환경교육주간 행사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교육 기관들과 협업하여 환경교육주간 행사 추진
- ▶ 정부부처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주간 행사 지역별 순회 추진

라 제안사항 및 개선방안

역할	담당기관				
	정부부처	국가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기타(모두)
환경교육주간 행사운영 예산지원	○				
환경교육주간 지역별 순회 추진 계획		○			
지역 내 환경교육주간 행사 추진			○	○	
지자체와 업무협약 추진			○	○	
환경교육주간 홍보 및 행사 참여					○

마 기대효과

- ▶ 환경교육주간 홍보 및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 기대
- ▶ 지자체-광역기초센터 간 업무협약으로 지역 내 환경분야 관심 증대

환경교육멘토링을 통한 미래세대 환경교육 실시



- 환경분야 멘토-멘티를 통해 미래세대의 환경교육 확대
- 환경진로 멘토링을 통한 환경직업군에 대한 관심도 향상



지속적인 멘토링 교육

가 제안배경

- ▶ 단발성 멘토-멘티 사업으로 지속적인 멘토링 필요
- ▶ 미래세대(학생) 환경분야 직업군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나 제안근거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다 제안방향

- ▶ 환경분야 전문가 멘토 - 환경에 관심이 있는 학생 멘티를 연결하여 1년 단위 멘토링 및 활동비 지원
- ▶ 환경분야 멘토 인증제를 도입으로 멘토 활동자 인센티브 제공

라 제안사항 및 개선방안

역할	담당기관				
	정부부처	국가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기타(모두)
환경분야 전문가 인력풀 제공	○	○			
멘토링 사업 추진 및 관리		○			
미래세대(학생) 멘티 추천 및 모집			○	○	
멘토-멘티 현장교육 지원			○	○	
환경멘토링 홍보 및 운영지원					○

마 기대효과

- ▶ 지속적인 멘토링으로 미래세대의 환경분야 관심 증대
- ▶ 멘토 인증제 도입으로 유능한 환경분야 멘토 발굴

제로웨이스트상점 지원강화



- 제로웨이스트 상점 지원으로 다회용기 사용 분위기 정착
-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약



제로웨이스트

가 제안배경

-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편리하지만 제대로 폐기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환경오염과 생태계를 위협
- ▶ 코로나19 이후 대폭 증가한 일회용품 사용량으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용 감소 필요

나 제안근거

-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폐기물의 발생 억제

다 제안방향

- ▶ 제로웨이스트 상점 지원(개업 및 유지 비용 일부 등)으로 정착화를 실현하여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통한 폐기물 발생량 감소 유도

라 제안사항 및 개선방안

역할	담당기관				
	정부부처	국가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기타(모두)
제로웨이스트 상점 지원	○				
폐기물 처리 과정 및 비용과 제로웨이스트 상점의 기능 교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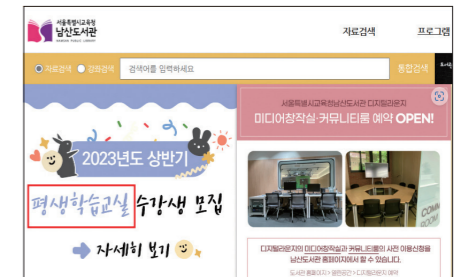
마 기대효과

- ▶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일회용품 감소로 폐기물 처리비용(소각, 매립 등) 및 환경오염 감소
- ▶ 제로웨이스트 상점 확대를 통하여 일회용품 사용 지양 분위기 형성

국립도서관 거점 사회환경 교육기관 설립



- 도서관의 풍부한 자료 보유를 활용한 환경학습 가능
- 국민의 평생학습권, 환경학습권 보장



서울 남산도서관 평생학습교실

가 제안배경

- ▶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대상자 확대 필요
- ▶ 환경교육 수강 내용을 확장할 풍부한 자료 필요

나 제안근거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환경학습권 보장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 ▶ 「평생교육법」제1조(목적):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

다 제안방향

- ▶ 국립도서관 내 존재하는 평생교육센터를 활용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누구나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 학습한 환경교육 내용을 도서관 내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함

라 제안사항 및 개선방안

역할	담당기관				
	정부부처	국가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기타(모두)
국립도서관 연계 환경교육 시설 확보 및 교육프로그램 추진			○		

마 기대효과

- ▶ 누구나 갈 수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여 국민의 평생·환경 학습권 보장
- ▶ 지역 거점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역에 대한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환경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환경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

환경교육도시 모델링사업 추진



- 환경교육도시 모델링 구축으로 신규도시 우수사례 전파
- 환경교육도시 지정 후(3년) 연구를 통한 지역 환경교육 확대

가 제안배경

- ▶ 신규 환경교육도시 지정 시 기존모델이 없어 운영 시 어려움 호소
- ▶ 환경교육도시 지정기간 내 각 도시별 환경교육 연구 필요

나 제안근거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환경교육도시)

다 제안방향

- ▶ '22년 지정된 환경교육도시 모델링 구축(신규환경교육사업 사례 등)
- ▶ 환경교육도시와 연구원 1:1 매칭으로 지정기간 내 연구 실시

라 제안사항 및 개선방안

역할	담당기관				
	정부부처	국가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기타(모두)
환경교육도시 모델링 예산 지원	○				
환경교육도시 모델링 구축 및 연구 지원		○			
환경교육도시 우수사례 전파					○

마 기대효과

- ▶ 모델링 구축 후 신규 환경교육도시 전파, 운영 활성화 기대
- ▶ 환경교육도시 지정기간 내 연구를 통한 지역 환경교육 확대

탄소중립(기후위기) 교육 기본계획 수립



- 탄소중립 교육의 법적 근거 및 기본전략 마련
- 체계적인 탄소중립 교육 시행과 지원으로 대국민 인식 확산

가 제안배경

- ▶ 탄소중립 인식제고 및 생활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현황파악 필요
- ▶ 관련 현안 및 정책-제도를 고려한 탄소중립 교육 기본계획 수립

나 제안근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다 제안방향

- ▶ 국내외 탄소중립 교육 실태 조사 및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 탄소중립 교육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전략 수립

라 제안사항 및 개선방안

역할	담당기관				
	정부부처	국가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기타(모두)
국내·외 탄소중립 교육 현황조사	○	○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전략 및 로드맵 수립	○	○			
탄소중립 교육 지원체계 마련		○	○	○	
탄소중립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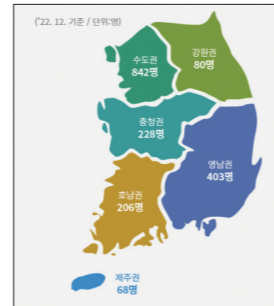
마 기대효과

- ▶ 탄소중립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전략 수립
- ▶ 탄소중립교육 이행을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대국민 인식확산

환경교육사 체계 확립 및 양성기관 확대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 확대로 보다 많은 교육기회 제공
- 체계적인 선별과정을 통해 신뢰도 향상



환경교육사 양성현황 11개 기관(2022)

가 제안배경

- ▶ 3급 간이과정 폐쇄로 2,3급 정규과정 양성기관 총 11개 (2급-2개소, 3급-9개소)
- ▶ 모집인원 초과 시 무작위 추첨식 선정으로 민원 다수 발생

나 제안근거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환경교육사)

다 제안방향

- ▶ 2급 양성기관 확대 및 3급 양성기관 전남,전북,강원지역 지정 추진
- ▶ 양성과정 신청 시 정량적인 평가지표 마련
- ▶ 환경교육사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으로 편입

라 제안사항 및 개선방안

역할	담당기관				
	정부부처	국가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기타(모두)
양성기관 확대 및 산업인력공단 편입 예산지원	○				
양성기관 역량강화 및 지정 지원		○			
정량적인 평가지표 개발		○			
환경교육사 양성			○	○	
인턴십 기관 지원					○

마 기대효과

- ▶ 양성기관 확대를 통한 교육기회 제공 및 선정방식에 따른 민원 감소
- ▶ 정량적 평가지표 개발 및 산업인력공단 편입으로 신뢰도 향상 기대

대중매체를 활용한 생활 속 환경교육 활성화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환경보호 습관화
- 탄소중립 실천으로 기후변화 완화



환경보전협회 홍보 (울산/경남협회-2022)

가 제안배경

- ▶ TV광고를 통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 금연을 통한 건강 강화 등 환경보호가 무거운 주제가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홍보 필요

나 제안근거

-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환경학습권 보장

다 제안방향

- ▶ 기존 공익광고(개인실천)에서 확장하여 일상생활을 넘어 경제활동에서도 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법 제작
- ▶ 시청각 플랫폼(OTT) 내 서비스 이용 시 제공하는 광고에 상영 추진

라 제안사항 및 개선방안

역할	담당기관				
	정부부처	국가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기타(모두)
플랫폼 내 환경보호 공익광고 사용 독려	○				
탄소중립 실천 가이드 제작		○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약					○

마 기대효과

- ▶ 지속적인 교육으로 환경보호의 습관화 실현
- ▶ 일상생활에서 확장하여 경제활동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에너지 절약

환경교육 차세대 리더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 환경교육을 이끌어갈 2030 차세대 리더 양성 및 역량강화
- 국가-광역-기초환경센터 2030 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청년운영위원회 운영

가 제안배경

- ▶ 환경 및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20~30대 청년리더 양성 필요
- ▶ 환경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필요

나 제안근거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환경학습권 보장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다 제안방향

- ▶ 제2기 청년위원회 위촉 시 광역-기초환경센터 실무자 위주 선별
- ▶ 권역별 청년리더 역량강화 실시방안 마련(강의, 현장답사, 위촉 등)

라 제안사항 및 개선방안

역할	담당기관				
	정부부처	국가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기타(모두)
환경교육위원회 운영확대	○	○			
제2기 청년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			
환경교육담당 실무자 현황조사			○	○	
20~30대 환경교육 청년리더 네트워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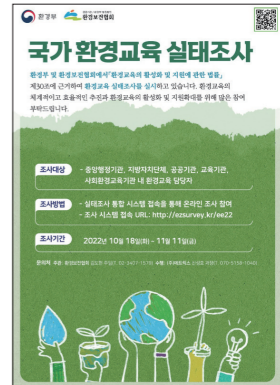
마 기대효과

- ▶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및 전략 수립
- ▶ 탄소중립 교육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대국민 인식확산

환경교육 실태 조사 응답 체계 구축 활성화



- 대한민국 환경교육 현황 파악
- 환경교육 현황 바탕 정책 수립 방향 제시



환경교육 실태조사 실시 (2022)

가 제안배경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환경교육 실태조사 의무화
- ▶ 강제성 없는 조사로 응답 부담 이유를 들어 미참여 기관 다수 발생
- ▶ 환경부 및 국가환경교육센터 미등록 사회환경 교육기관 응답 불가
- ▶ 환경교육 관련 법(조례), 행정 관련 사항(인력/예산 등), 환경교육시설 현황 등 환경교육 관련 사항 파악 필요

나 제안근거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다 제안방향

- ▶ 공공부문 환경교육 실태조사 참여 의무화 법률 도입
- ▶ 사회환경교육기관 의무 등록제를 통한 기관 현황 파악
 - 광역(기초)센터를 통한 현황 수집 후 국가환경교육센터를 통한 DB화
 - 의무등록 절차 간소화
- ▶ 조사지표 간소화를 통한 응답자 부담 완화(응답 방법 가이드 제시)

라 제안사항 및 개선방안

역할	담당기관				
	정부부처	국가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기타(모두)
환경교육 실태조사 참여 의무화 법률 도입	○				
사회환경교육기관 의무 등록제 도입	○				
사회환경교육기관 현황 파악		○	○	○	
실태조사 지표개발(간소화)		○			

마 기대효과

- ▶ 대한민국 환경교육 현황을 진단하고 내실 있는 환경교육 정책 수립

Part
3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지역 특성화 환경교육 사업 제안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제안

01

수도권·강원권

- > 지자체에서 특화 여행프로그램(수원화성 플로깅 등) 개발 및 실시
- >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인천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과 문화를 결합한 교육시범 추진(유로투어)
- > DMZ(파주)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교육(24시간 생물다양성조사) 실시
- > 지역 마스코트와 함께하는 환경실천 홍보영상 제작 및 노출
- > 종량제봉투 배포 이벤트(생활 속 실천가능한 환경보호 실천 업로드) 실시
- > 지역 내 대학축제를 환경축제로 운영

충청권

- > 지역 내 환경관련 기업(시멘트회사)과 환경현안 공유 및 교육 실시
- > 지역방송사와 협력을 통해 대중매체(TV) 지속적인 노출 실시

호남권

- > 전라남도 환경교육 대전(환경전시, 교육공유, 경진대회) 운영
- > 호남지역에 대한 이해가 담긴 교육안 개발

영남권

- > 환경교육도시 팝업홍보관 운영으로 환경교육 홍보
- > 환경벨트 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환경유관기관 소개
- > 대구환경교육 현황조사를 통해 환경교육 방향 설정
- > 해양환경해설사 양성 확대
- > 환경교육영화제, 불편한 음악회 등 지역축제 변화



지역 내 환경교육 거점기관 (광역환경교육센터)

02

광역환경교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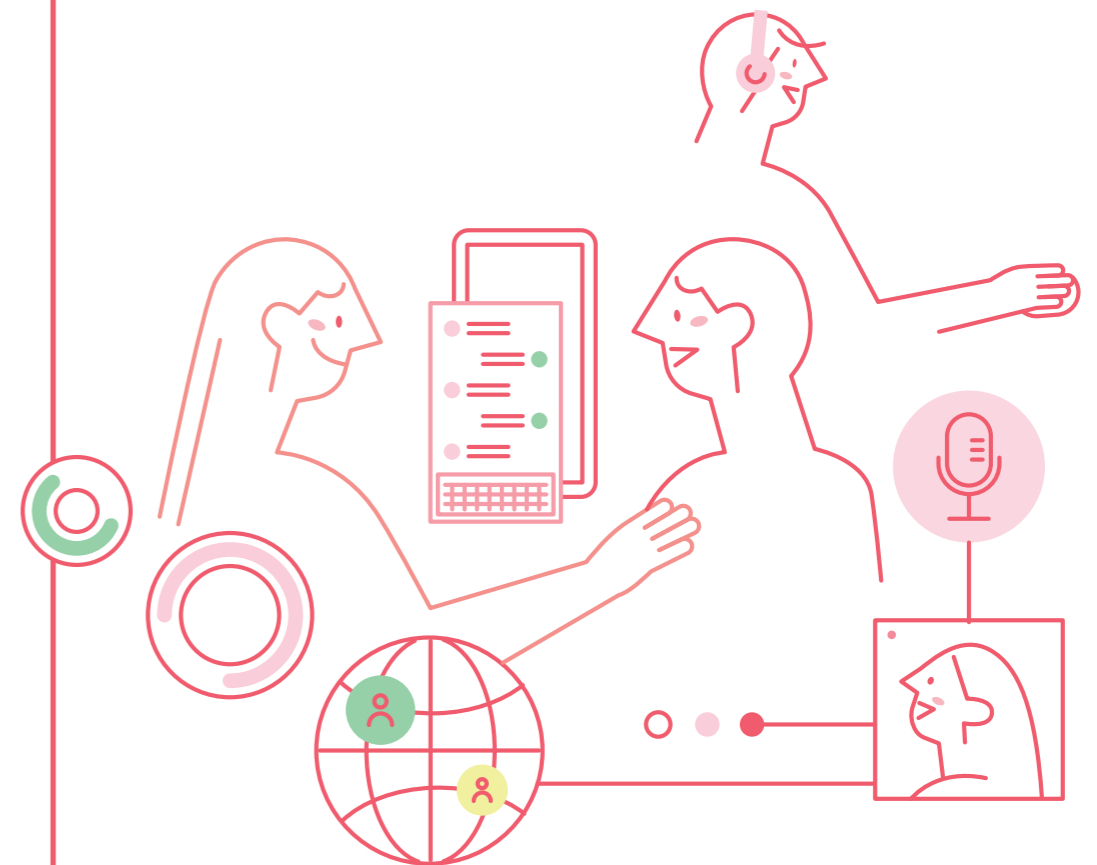
광역단위 수준의 환경교육 공간, 프로그램 정보 제공, 교육·양성, 연구개발 및 조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역할 수행 등 지역환경교육 통합관리 및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 17개소 지정·운영** 중입니다.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 032-212-5300 🏠 www.incheoneec.or.kr	경기도 환경교육센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031-985-0796 🏠 www.ggeec.or.kr	강원도 환경교육센터(제1호) 강원도자연학습원 ☎ 033-731-1600 🏠 www.chi1288.kr	강원도 환경교육센터(제2호) 한국DMZ평화생명동산 ☎ 033-463-5155-7 🏠 www.dmzcopeace.com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 청주국제에코컴플렉스 ☎ 043-276-9688 🏠 https://www.cbeec.kr/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센터 세종환경교육센터 ☎ 044-863-9912 🏠 sjeec.or.kr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 광덕산환경교육센터 ☎ 041-555-2582 🏠 http://www.cneec.kr	경상북도 환경교육센터 경상북도환경연수원 ☎ 054-440-3211 🏠 www.igreen.or.kr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 042-335-3500 🏠 djeecp.com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제1호) 전라남도자연환경연수원 ☎ 061-381-8361 🏠 http://jnnature.kr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제2호) 신안군생태교육원 ☎ 061-261-5300 🏠 http://shinaneco.com	부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부산환경보전협회 ☎ 051-507-4755 🏠 www.beec.or.kr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제3호) YMCA가사리생태교육관 ☎ 061-642-0009 🏠 www.가사리생태교육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사)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 064-722-9432 🏠 www.jeec.or.kr	경상남도 환경교육센터 경상남도환경교육원 ☎ 055-254-4033 🏠 www.gyeongnam.go.kr/gnnature	대구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사)대구환경교육센터 ☎ 053-752-3557 🏠 www.daegueec.co.kr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 052-288-7490 🏠 http://www.ueec.or.kr/	경상북도 환경교육센터 경상북도환경연수원 ☎ 054-440-3211 🏠 www.igreen.or.kr		

Part
4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청소년, 청년들의 정책제안



청소년·청년운영위원회 소개

01

가 배경 및 목적

- ▶ 청소년·청년운영위원회는 자신들의 미래 환경에 대해 발언하고, 청소년·청년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활동 기구
- ▶ 국가환경교육센터가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할 때 청소년·청년의 권리와 실천의 주체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사업 제안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16.7」 모든 단계의 의사결정이 호응을 이끌어내며, 포괄적이고, 참여 지향적이고 대의적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아동권리협약(CRC)12.1」 당사국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아동에게는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그 의견에 적절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
 「청소년헌장(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운영위원회 개요

- ▶ 위원회 구성
 - 청소년 운영위원: 14세 이상 ~ 18세 이하의 청소년 총 15명
 - 청년 운영위원: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총 15명
- ▶ 임기
 - 청소년 운영위원: 1년/ 現 제3기 위촉·운영('22.7.1. ~ '23.6.30.)
 - 청년 운영위원: 1년/ 現 제1기 위촉·운영('22.3.27. ~ '23.3.26.)
- ▶ 운영경과
 - 청소년 운영위원 제1기 '20.06.27. ~ '21.06.26.(토크콘서트, 정책제안서 제작)
 - 청소년 운영위원 제2기 '21.06.27.~ '22.06.26.(달력제작)
- ▶ 활동내용
 - 센터의 청소년·청년 관련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참여와 모니터링



다 주요활동

- ▶ '22년 청소년·청년 운영위원회 주요활동
 - 환경교육 활성화 정책제언(2022년 환경교육주간 청소년·청년 포럼)

영상주제	영상자료	바로가기
'청소년·청년 포럼' 영상 (정책제언 발표)		

- 공동프로젝트(1기 청년운영위원-환경영상제작 2편)

영상주제	영상자료	바로가기
공동프로젝트-환경교육 영상1 (재활용 참견시점)		

영상주제	영상자료	바로가기
공동프로젝트-환경교육 영상2 (환경교육 소개)		

- 공동프로젝트(3기 청소년운영위원-환경기념일 달력제작)

영상주제	바로가기

우리들의 목소리

02

청년운영위원
홍예련

과자봉지를 일반쓰레기에 버리기, 일회용 컵에 커피 담아서 먹기 등 자연스럽게 환경문제를 초래하지 않으셨나요? 당신의 작은 실천으로 환경문제를 줄어나갈 수 있습니다.

청년운영위원
이수영

기후변화와 불평등, 빈곤과 질병, 분쟁과 평화는 상호 연결된 하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 모두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환경교육의 활성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청년운영위원
김다예

지구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역맞춤형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각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이바지하여, 지속가능한 내일에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푸른 지구, 지금 함께해주세요.

청년운영위원
이용진

깨끗한 우리 동네를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 대상 환경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지역주민의 친환경 실천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단위 환경리더가 양성되길 바랍니다.

청년운영위원
김유미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나와 가족, 국가를 넘어 전 세계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환경도 국가안보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국군장병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

청년운영위원
서주영

기후위기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북극만 아니라 남극도 녹고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존하기 위하여 조금의 노력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환경단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사람 모두가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내로남불하지말고, 모두가 나의 일처럼 바로 지금부터 실천합시다.

청년운영위원
장지현

나 자신에게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행동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리빙랩을 포함한 시민참여형 환경교육프로그램들을 지자체 중심으로 적극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청년운영위원
이민정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과 지속적인 온라인 콘텐츠의 생성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적인 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삶의 일부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청년운영위원
윤성령

올바른 환경교육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환경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
성지현

환경교육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높이고 환경에 대한 책임을 알리는데 필수적입니다. 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해 환경교육이 첫 단계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운영위원
김예진

환경보호 행동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모두가 기후 위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
안혜원

우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고, 그 마지막 기회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며, 당신의 평범한 행동이 우연을 만들어내고, 우연이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린 어제와 달라지고, 내일 만들 수 있습니다. 행동하세요, “지금 당장”.

청소년운영위원
신성빈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환경정책 공모전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검토하여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관심에 대해 깊이있게 탐구하며 자신의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
이다경

‘교육의 시작에 있어서의 방향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플라톤이 남긴 명언입니다. 저는 인간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답은 결국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교육이 인간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 기여했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터전인 환경과 지구에 공존하는 다른 생명들의 존귀함을 가르치는 교육이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2023년 환경 교육 의무화 방침이 기폭제가 되어 이후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정부 기관의 관심이 집중되고, 나아가 누구나 기초교육처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 교육 정책이 보편화되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청년운영위원
김민성

해마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유아교육부터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지향하여 자연문제에 관한 인식을 더욱 깊게 새길 기회가 마련된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정책제안

03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

김예진 청소년운영위원
윤성령 청년운영위원

학교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고민하려면 우선 환경교육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환경교육의 사전적 정의는 ‘환경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사실 환경교육은 어떤 관점을 통해 바라보느냐에 따라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1969년 최초의 학술적 정의¹⁾를 시발점으로 다양하게 해석되었고 국가환경교육포털에 있는 용어사전에 의하면 공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 또는 자연 연구, 보전연구, 야외교육, 체험교육, 모험 교육의 전통이 모여 형성된 교육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환경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경교육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환경교육’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저희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작은 결실을 모아 큰 사회적 변화로 연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환경교육은 평생교육의 일부로서 국민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과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청소년일수록 적극적으로 가정, 학교, 지역 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필요합니다.²⁾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교육은 해외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2020년부터 초·중·고 전 학년 기후변화 수업을 의무교육에 포함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환경과 과학을 총 17단위로 편성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2003년 10월에 환경교육 추진법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2020년에 노스오브타인 지역의 모든 공립학교

1) 1969년, 최초의 학술적 정의: 미국 환경청(EPA, 2002)이 정리한 미국 환경교육사에 따르면, 환경교육을 학술적으로 처음 정의한 사람은 미시간 대학의 스태프 등(Stapp et al., 1969)이다. 그는 1969년 발간된 환경교육 학술지(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창간호에서 환경교육을 “생물·물리학적(bio-physical) 환경과 환경문제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환경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지 인식하고, 나아가 해결책을 실행할 동기를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정의하였다.

2) 청소년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비영리단체 에코맘코리아의 하지원 대표는 “환경과 생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청소년일수록 가정, 학교, 지역 등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청소년 환경 교육 중요... 작은 변화·실천 모여 세상을 바꾸죠 (2018.10.22.)

에 기후환경 교사를 한 명씩 배치하였습니다. 호주에서는 교육과정에 지구 환경과학 교과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2016년부터 탄소중립 학교를 만들기 시작해 2030년까지 학교 온실가스 80% 감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1~12학년 교육의 목표와 개념을 재설계하였으며 환경 윤리, 지속가능한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 기후변화, 재난 대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에서는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주당 2시간의 국가 이슈 수업시간에 3가지 주제를 학습하는데 다루는 주제 중 하나가 ‘기후위기 교육, 미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고등학교 환경교과목 채택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환경 과목 채택률이 2007년 20.6%에서 2018년 8.4%까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과목을 채택한 학교 8.4%의 79%는 전공과 무관한 교사 즉 상치교사가 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학교의 1.8%만이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2007	2009	2010	2012	2014	2016	2018
총 학교(개)	5,226	5,336	5,381	5,449	5,841	5,576	5,591
선택 학교(개)	1,077	889	902	622	573	496	470
선택률(%)	20.6	16.6	16.7	11.4	9.8	8.9	8.4

(※ 환경부. 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

아래는 2020년 기준 환경교사 자격 소지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전체 교원 중 환경교과 담당 교원은 0.4%이며 그중 환경 교원 자격을 소지한 교원은 0.01%, 미소지한 교원은 0.03%입니다.

(단위: 명, %)

연도	구분	전체 교원	환경교과 담당교원		환경교원 자격소지*		환경교원자격 미소지(상치교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20	전체	243,998	104	0.04	35	0.01	69	0.03
	중학	111,894	20	0.02	7	0.01	13	0.01
	고등	132,104	84	0.06	28	0.02	56	0.04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 교육기본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 환경교원 자격증 소지자인 동시에 환경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
 ** 환경교원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으나, 환경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

위 두 가지 표를 보면 공통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환경교과 담당 교사의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중 자격증을 소지하여 전문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의 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환경교육 경험 및 요구 조사’라는 논문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내용 이해를 위해 논문에서 나오는 ‘표집 학교’와 ‘참여 학교’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논문에서는 모집단인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일부 추출하여

삼은 표본을 ‘표집 학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2020년 사이 환경부의 환경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선정하여 삼은 집단을 ‘참여 학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집단을 유의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앞서 설명해 드린 두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환경교과목 관심 정도의 차이입니다. 논문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의 환경교육 지원 사업 참여학교에서의 관심도는 약 3.9%, 전국의 학교 중 임의로 뽑은 표본집단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관심도는 약 3.6%로 참여 학교의 관심도가 표집 학교의 관심도보다 높다고 합니다. 확률상 0.3%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연구의 모집단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임을 고려한다면 유의미한 차이로 볼 수 있으며 학교에서 환경교육의 비중을 두는 정도에 따라 학생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³⁾

표 8. 환경 시안별 관심 정도(표집학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후변화/기후위기	3.7	1.0	3.4	1.1	3.8	1.0	8.156***
생태계 보전	3.7	0.9	3.5	1.0	3.7	1.0	3.831*
생물다양성 보존	3.7	1.0	3.5	1.0	3.7	1.0	3.880*
물 위기	3.9	1.0	3.6	1.0	3.7	1.0	11.158***
자원 순환	3.8	0.9	3.5	1.0	3.7	1.0	11.160***
에너지 전환	3.6	1.1	3.4	1.1	3.7	1.0	6.309**
지속가능한 도시	3.9	0.9	3.5	1.1	3.8	1.0	11.341***
환경재난 예방	3.9	1.0	3.6	1.1	3.8	1.0	9.385***
친환경적·윤리적 소비	3.7	1.0	3.5	1.1	3.7	1.0	2.740
기업의 사회적 책임	3.5	1.1	3.5	1.0	3.7	1.1	3.449*
환경윤리와 실천	3.8	1.0	3.5	1.0	3.8	1.0	8.123***

* p<0.1, ** p<0.05, *** p<0.01, **** p<0.001.
 주: '전혀 관심 없음(1점)-매우 관심 있음(5점)' 5점 척도의 평균값임.

표 9. 환경 시안별 관심 정도(참여학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기후변화/기후위기	3.9	1.0	3.8	0.9	4.1	0.9	6.021**
생태계 보전	4.0	0.9	3.9	0.9	4.1	0.8	3.459*
생물다양성 보존	4.1	0.9	3.8	0.9	4.1	0.9	4.126*
물 위기	4.2	0.8	3.9	1.0	4.0	0.9	4.223*
자원 순환	4.1	0.9	3.8	0.9	4.1	0.9	5.908**
에너지 전환	3.9	1.0	3.8	1.0	4.0	1.0	3.679*
지속가능한 도시	4.2	0.9	3.9	1.0	4.1	0.9	5.180**
환경재난 예방	4.2	0.9	4.0	0.9	4.1	0.9	4.153*
친환경적·윤리적 소비	4.0	0.9	3.8	1.0	4.0	1.0	2.223
기업의 사회적 책임	3.8	1.0	3.8	0.9	4.0	1.0	3.936*
환경윤리와 실천	4.2	0.9	3.9	0.9	4.1	0.9	5.112**

* p<0.1, ** p<0.05, *** p<0.01, **** p<0.001.
 주: '전혀 관심 없음(1점)-매우 관심 있음(5점)' 5점 척도의 평균값임.

아래는 ‘참여 학교’와 ‘표집 학교’의 환경 관련 정보 얻는 방법에 관한 표입니다. 두 집단 모두 환경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제외하면 학교 수업이나 활동을 통해 얻는 방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교수업과 활동’을 통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표 10. 환경 시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3개 선택, 표집학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x ²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학교수업이나 활동	267	67.9	147	48.4	186	58.1	
신문, 잡지, 책 등 인쇄자료	65	16.5	46	15.1	48	15.0	
tv, 라디오	113	28.8	86	28.3	79	24.7	
인터넷	260	66.2	212	69.7	233	72.8	41.598***
친구, 가족	73	18.6	47	15.5	36	11.3	
기타	4	1.0	6	2.0	4	1.3	
계	782	199.0	544	178.9	586	183.1	

* p<0.1, ** p<0.05, *** p<0.01, **** p<0.001.

표 11. 환경 시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3개 선택, 참여학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x ²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학교수업이나 활동	173	74.6	88	63.8	287	71.0	
신문, 잡지, 책 등 인쇄자료	37	15.9	17	12.3	77	19.1	
tv, 라디오	58	25.0	45	32.6	104	25.7	
인터넷	115	49.6	94	68.1	300	74.3	68.887***
친구, 가족	42	18.1	16	11.6	32	7.9	
기타	4	1.7	0	0.0	6	1.5	
계	429	184.9	260	188.4	806	199.5	

* p<0.1, ** p<0.05, *** p<0.01, **** p<0.001.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하는가?’에 관한 학생 응답을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보시면 표집 학교와 참여 학교 모두 5점 만점에 평균이 4.0점 이상으로 매우 높게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단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 환경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출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환경교육 경험 및 요구 조사(주형선·김남수·전푸름·이선경)

표 14. 환경문제 해결 위해 학교 환경교육 강화할 필요성(표집학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응답값	4.3	0.75	4.0	0.93	4.2	0.92	7.778***

* $p<0.1$, ** $p<0.05$, *** $p<0.01$, **** $p<0.001$.
 주: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매우 동의함(5점)' 5점 척도의 평균값임.

표 15. 환경문제 해결 위해 학교 환경교육 강화할 필요성(참여학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응답값	4.4	0.76	4.3	0.73	4.4	0.80	2.500

* $p<0.1$, ** $p<0.05$, *** $p<0.01$, **** $p<0.001$.
 주: '전혀 동의하지 않음(1점)-매우 동의함(5점)' 5점 척도의 평균값임.

위에서 살펴본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교과목은 현재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상 필수과목들을 채우고 나머지 선택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기에 기회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있어 환경 과목의 중요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 과목이 아예 개설되지 않은 학교도 많습니다. 또한, 앞에서 표를 통해 확인했던 것처럼 부족한 환경 교원 중에서도 다른 과목 담당 교사가 부수 과목으로 맡는 등 상치교사의 비율이 높으므로 때로는 환경 교과목 시간을 오로지 환경을 배우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입시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발표수업이나 자습시간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문제점을 통하여 저희는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다음 3가지 정책을 세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정책은 중·고등학교 환경 과목 정규과목 편성 및 환경 교사 채택 의무제입니다. 현재는 환경 과목이 편성되지 않은 학교, 다른 교사가 부수 과목으로 담당하는 학교, 환경 교사가 환경 과목을 담당하는 학교로 나뉘어 있으므로 위 정책을 통해 다른 정규과목과 동일하게 모든 학교에서 전문 환경교사가 환경과목을 정규교육과정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학생들의 평등한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며 올바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환경교육의 발전에 있어서 첫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환경 교사 양성 증대입니다. 현재 환경교육과가 개설된 대학은 목포대, 순천대, 공주대, 한국교원대 총 4개교로 환경 교사를 양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배출되는 환경 교사도 2008년에 6명, 2021년에 7명으로 매우 적은 상태입니다. 또한 선발된 환경 교사도 적은 인원수만 환경 교과를 맡고 나머지는 타 과목을 배정 받거나 자유학년제 순회 교사로 발령 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고 더 많은 임용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회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을 위한 환경 수업 시간 확보 정책입니다. 현재 환경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중·고등학교의 환경 과목 시간은 다른 정규과목 수업 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을 충분히 늘린다면 학생들의 환경 수업 흥미를 끌어냄과 동시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소개한 환경교육의 필요성 중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3가지 필요 정책을 제안해보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인식 및 수준별 맞춤형 환경교육

박현성 청년운영위원

환경교육의 중요성 확대 및 법적 근거 강화

최근 1, 2년 동안 환경교육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인 코로나19의 발생,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및 기후재난의 심각성이 보다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교육의 수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 제22조 2항에는 기후변화 환경교육에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 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상 사회 환경교육과 더불어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와 환경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환경교육의 문제점

그러나, 환경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한 시기에 기존의 위기상황만을 강조하고, 교육 당사자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 나아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에게 책임과 행동의 변화를 강요하는’ 기존 학교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처럼 환경교육이 주목받게 되는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비전과 구상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환경교육에 긍정적이지 못한 학생들에게 어떤 학교 환경교육과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을지 고민하던 중 “기후위기 인식과 관점에 따른 맞춤형 환경교육”이라는 주제로 정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후향적 관점에서의 환경교육의 필요성

우선, 제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은 지구환경을 둘러싼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적 지식 전달 뿐만 아니라, 생태적 소양과 올바른 가치관을 토대로 하는 “지구생태시민”을 길러내는 것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식 전달과 개인이 책무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환경교육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교육의 지속가능성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환경교육은 후향적 관점⁴⁾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자들이 처방하는 요구, 필요가 아니라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교육은 학습자의 능동성⁵⁾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후향적 관점의 교육은 지금의 교육 정책처럼 일률적이고 수직적인 교육이 아닌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파악하고 학습자를 이해를 전제하여 교육 정책 및 과정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수동적인 강의식 교육이 아닌 학습자가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 등이 있습니다.

인식수준 고려 없이 이루어지는 기존의 환경교육 문제

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 활동을 하며 다양한 기후위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1) 아직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청소년, (2) 위기의식에는 공감하나, 개인적 실천의 필요성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 (3) 기후위기라는 복잡성과 거대한 담론에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청소년,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실천하는 청소년 아무리 같은 나이 또는 세대라고 하더라도, 기후위기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과 실천단계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환경교육은 이러한 인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에 관한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실천만을 강요하는 교육방식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의 목적은 단순한 사실과 과학적 지식을 전달이 아니라 지구생태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 내용과 방식은 기후위기에 따른 개인의 인식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설득력이 부족하고, 자칫 환경교육이 도덕적 훈계에 머무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후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환경교육은 미래세대에게 기후위기 대응과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환경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환경교육이 다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학생들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환경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맞춤형 환경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후위기 문제를 (1)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2) 개인적 실천 단계에서 (3) 기후우울증 단계를 거쳐 (4) 사회적 실천 실천까지 유도하는 단계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식수준별 환경교육의 목표와 키워드, 내용

저는 A.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한 청소년 B.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청소년 C. 개인적인 환경실천을 하는 청소년 또는 기후우울증을 앓는 청소년 D.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실천을 하는 청소년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단계별 관점을 구분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은 환경 MBTI의 형태로 이것의 목적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유도하고 이를 토대로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학생들은 설문을 MBTI처럼 재미있게 이것을 참여하고, 이러한 자료는 모여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는데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맞춤형 환경교육의 방향

제가 제시하는 아래의 맞춤형 환경교육은 Worldwatch Institute⁶⁾의 앞으로의 시련에 대비하기 위한 최적화 교육, 지구교육 핵심 원리(지구핵심)⁷⁾에 근거해 구성했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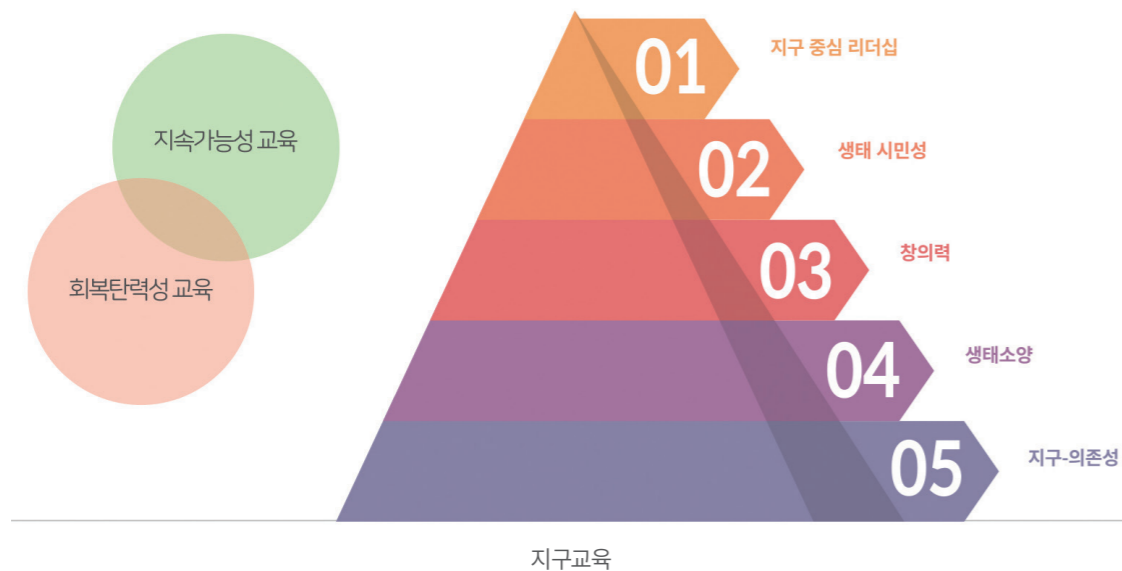
첫째, 기후위기 문제는 사회-문화-정치-경제 등의 변화를 필요로 하므로, 환경교육은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인류는 지구에서 하나의 종에 불과하며 그 안에서 서로가 철저히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고(원리: 지구의존성), 지구 전체 생태를 이해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적 소양(원리: 생태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둘째, 기후위기는 앞으로 삶에 전반적인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에 기후위기로 인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급격한 변화에도 유연성과 적응력을 길러내는 회복탄력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복잡하고, 참신한 발상을 필요로 할 것이기에 교육 또한 창의력(원리: 창의력)을 우선순위에 두는 창의력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생들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시민의 자세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세상을 생태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여 더 나은 지구의 미래와 친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원리: 생태시민성) 또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인류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경건한 생태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용기를 북돋워 주고 능력을 부여해야 합니다.(원리: 지구 중심 리더십)

앞서 언급한 ‘Worldwatch Institute의 앞으로의 시련에 대비하기 위한 최적화 교육, 지구교육 핵심 원리(지구핵심)’중 다수는 이미 지금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양이 충분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진행할 뿐입니다. 또한 아래 피라미드 형태처럼 학생들의 원활한 이해 및 적용을 위해 하위 핵심 원리들이 바탕이 되고 이후에 상위 개념을 위한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6) 월드워치연구소는 환경운동가 레스터 브라운(Lester Russel Brown)이 설립한 환경 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과학적인 연구 조사와 결과를 기반으로 하는 철저한 연구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로 1984년 이후 매년 <지구환경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격월간 잡지인 <월드워치>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보고서>는 매년 초 전 세계 언론들이 빠짐없이 인용, 보도하는 환경 분야 최고의 권위지입니다. (여기에 그 핵심원리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세요, 아래 제시한 표의 다섯가지 원리와 일치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월드워치연구소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기후위기 인식수준별 교육 방향 요약

수준	목표	키워드	사례
A.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한 청소년	인류는 절대적으로 지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기후위기가 나에게 닥친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지구 의존성	서울환경영화제 시민들의 경험 공유 (http://lps3.www.dbpia.co.kr.libproxy.kongju.ac.kr/pdf/pdfView.do?nodeId=NODE10589445)
B.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한 청소년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환경 가치관을 확실하게 하고 환경실천을 내면화한다.	생태소양	환경부 #용기내, 우리 모두 용기내 챌린지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7012)
C. 개인적인 환경실천을 하는 청소년 또는 기후 우울증을 앓는 청소년	기후위기로 인한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다른 사람과 연대할 수 있는 힘을 주어 함께 사회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력, 생태 시민성	국립생태원 생태환경(동아리) 탐구 발표대회 (https://cafe.naver.com/nieedustudy)
D.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실천을 하는 청소년	지구리더로 성장해 인류가 앞으로 닥칠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구 중심 리더십	한국 환경동아리 연합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 추진 정책제안 (https://www.nypi.re.kr/brdarticleView.do?menu_nix=n9V4e53Z&brd_id=BDIDX_32947GB02vqSM00FW3XJ55&tab=)

기후위기 인식수준별 맞춤형 환경교육 사례 및 제안

A.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
_문화예술 기반 환경교육 제안

먼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교육의 접근성과 지구-의존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든 인류는 지구를 기반으로 살고있고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발전은 없다는 성장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단지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깊이 내면화하여 온전히 자신의 문제로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구-의존성’교육의 사례로는 에듀테인먼트⁷⁾로서 서울환경영화제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환경영화제는 환경재단 주관 사업으로 환경재단은 2004년부터 서울국제환경영화제를 주최하여 영화를 통해 오늘의 환경을 이야기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화제는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시민들이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Monani,S.,2013)

이렇기에 환경영화제를 에듀테인먼트로서 환경교육의 가능성을 연구한 논문⁸⁾에 따르면 서울환경영화제 참여 경험이

7)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는 에듀케이션(education, 교육)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오락)의 합성어로 게임을 하듯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형태입니다.

8) 지혜성, 윤순진 (2021) 에듀테인먼트로서 환경영화제의 환경교육적 의미와 효과 - 서울환경영화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있는 시민들과의 현재까지의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 환경영화제는 에듀테인먼트의 특성으로 제시되는 교육적, 오락적, 자발적, 몰입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방문객에게 환경과 영화에 대한 인식 확장,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 실천적 삶에 대한 가치 인식 등 지구-의존성에 부합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일반 방문객에게 교육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이를 근거로 A.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 학습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지구온난화, 기후위기, 생물 종 다양성, 동물권,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검증된 영화를 학교에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상영합니다. 영화라는 시각적인 매체를 통해 고유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기존의 접해보지 못했던 신선한 주제이기에 학생들에게 흥미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영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영화를 본 이후 영화의 내용 속 쟁점 또는 문제 상황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다큐인 **씨스피라시**⁹⁾를 시청하고 어업으로 인해 생기는 해양 쓰레기를 커다란 문제 상황으로 정합니다. 많은 환경 단체들은 그동안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 오염의 주 원인이라고 홍보해왔지만, 해양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빨대는 고작 0.03%에 불과했고, 가장 많은 건 무려 46%를 차지하는 그물이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어업은 바다를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죽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과연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선 물고기를 아예 먹지 않고 어업을 중단하는 방법밖엔 없을까? 우리가 어업을 통해 바다를 황폐화하면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올까? 와 같은 질문들을 학생들이 주체로 나누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 향상, 유한한 지구를 이해 및 심각성 인식, 환경에 대한 관점 변화 등 지구-의존성에 부합하는 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B. 환경실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

_SDGs 기반 SNS 환경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환경교육 제안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실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은 생태소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생태소양을 기반으로 환경실천을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태소양은 지구 전체 생태를 이해하고 삶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환경실천이라(채식, 식당 포장 다회용품 사용) 하면 사회적으로 선민의식 또는 고상한 것으로 여기며 실천하기에 눈치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진행한 ‘용기내 챌린지’¹⁰⁾라는 성공적인 정책을 통해 환경실천이 보편화되고 환경실천이 SNS 트렌드로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선례를 B. 환경실천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의 학습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용기내 챌린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일등

9) 2021년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수산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실체를 고발하고 그를 둘러싼 생물 다양성(상어, 돌고래의 중요성) 기후변화, 어업 종사자들의 인권문제를 적나라하게 다루는 다큐입니다.

10) ‘용기내 챌린지’는 이름대로 겁내지 않을 ‘용기(勇氣)’와 음식을 담아 가지고 돌아올 ‘용기(容器)’, 이 두 가지의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용기’에 식자재나 음식을 포장해 오면 됩니다. 이후 SNS(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에 포장 사진과 함께 ‘#용기내 챌린지’ 혹은 ‘#용기내 캠페인’의 해시태그를 게시하면 참여 완료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공신인 SNS를 통한 실천 공유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교육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부터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환경실천을 거부감 없이 SNS를 보고 따라하며 올리고 주변 친구들을 태그해서 자연스럽게 환경실천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실천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것이 아닌 SDGs¹¹⁾ 기반 SNS 환경 커뮤니티 만큼 실천 및 공유 전 SDGs 기반 환경교육이 진행되고 그 이후 SDGs 주제와 관련한 환경실천을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활동 및 수업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단순히 환경실천을 해야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실천만 강요하던 환경교육과 달리 SDGs를 기반으로 지구 전체 생태를 이해하고 삶속에서 학습자 주체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C. 개인적인 실천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발전하기 위한 환경교육

_SDGs 기반 인문과학적, 자연과학적 환경 탐구 프로젝트 수업 제안

개인적인 실천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발전하기 위한 환경교육은 창의력과 생태시민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래의 기후위기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생태시민성을 통한 지속가능함을 추구함을 목표로 합니다.

SDGs 기반 프로젝트형 환경교육은 SDGs 주제 Goal. 13 기후변화와 대응, Goal. 14 해양 생태계 보전, Goal. 15 육상 생태계 보전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환경 보전과 같은 내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이후 주제를 확장하여 Goal. 1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Goal. 2 기아해소와 지속가능한 농업 Goal. 5 양성평등과 같은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 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SDGs 주제는 연결되어 있기에 이후 이수영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실 융합적 환경교육과 같은 맥락으로 SDGs 주제를 융합해 수업을 진행하는 형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SDGs.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SDGs. 13 기후변화 대응을 융합해 소득별 탄소배출량과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반비례하는 기후불평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후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을 준비하는 것 또는 기후위기 취약 계층을 위한 새로운 기술 또는 발명품을 개발하는 등 인문적 또는 과학적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가장 이상적인 프로젝트는 인문계열 학생들과 이공계열 학생들이 함께 SDGs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찾는 시간을 가지고 이후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합니다. 이후 공동의 프로젝트를 서로의 강점을 살려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작용하며 서로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합니다.

프로젝트 환경교육 사례로는 국립생태원 생태환경(동아리) 탐구 발표대회가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진행되는 생태 탐구대회로 대표적으로 3가지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성공적인 탐구를 이끌었습니다.

첫째는 카페 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별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자료의 축적뿐 아니라, 서로 다른 팀의 연구 결과를 보며 상호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는 멘토링을 통해 팀별 운영 과정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카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뿐 아니라 지역 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이어

주는 지원 네트워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차레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이론적인 내용 전달과 함께 탐구활동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강의식 수업에 해당될 것입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SDGs 환경 프로젝트 학습에서도 이 세 가지 지원방식을 따라 학생들의 주도성과 양질의 교육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뤄내는데 중요할 것입니다.

D. 지구리더로 성장을 위한 환경교육

환경 동아리 연합 및 지역 환경 커뮤니티 제안

마지막으로 지구리더로 성장을 위한 환경교육입니다. 키워드는 지구 중심 리더십으로 청소년 각자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보고 및 정책 제안 드리는 사업으로 한국 환경 동아리 연합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이번 포럼 사회를 맡아주신 성지현 청소년 운영위원장님과 저와 작년 P4G Youth voice festa 참여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존의 학교 환경동아리의 경우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입시를 위한 도구 정도 사용되고 있기에 환경 동아리들을 연대해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 환경교육센터를 이어주는 식으로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드는 아젠다입니다. 지구리더로의 성장은 교육을 받으며 이뤄지기보단 스스로 주체로써 활동을 해야하기에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런 주체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배움의 장을 통해 지구 중심 리더로 성장할 것을 기대합니다.

지구교육과 환경교육이 이끄는 지구생태시민성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에게 맞춤형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 환경교육 내실화를 견고히 하고, 환경교육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설득력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도덕적 훈계에 지나지 않았을 과거 환경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학습자의 능동성을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생태소양을 갖춘 미래세대를 길러내고 나아가 더 나은 미래의 지구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대학교를 통한 평생학습과 커뮤니케이션 구축

정예진 청년운영위원

먼저 저의 발제의 핵심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은 유아부터 노년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을 의미하며,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등의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포함합니다.

국가의 평생교육 지원 강화로는 먼저 교육부가 2020년 6월 「평생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국민 개인의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명문화하며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평생학습의 지원도 높였는데, 특히 저소득층 등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지원하여 평생교육 사업의 규모를 2021년도에 74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재정 지원을 약 2배 정도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평생학습에 환경교육을 함께 실시하여 전 연령대별로 필요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제안합니다.

평생학습도시의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도시로, 2022년에는 누적 188개가 설립되며 전국 기초 지자체의 83.2%의 많은 평생학습이 도입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의 예로는 강원 태백시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평생학습도시의 목표를 살펴보면, 첫번째로는 자원을 활용한 태백시 평생교육의 활성을 통해 지역의 특징과 자원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두번째로는 모든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평생교육으로 전 연령대 사람에게 교육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세번째로는 평생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학습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게 하며 자격과 일자리 등을 통해 개인 역량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의 목표를 돕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학습센터에 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지역 주민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습 공간을 의미합니다. 행복학습센터의 운영 지역은 2014~2017년 기준 129개의 시·군·구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는 지역 내 마을 단위의 학습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저는 평생학습 중에서도 행복학습센터의 운영의 특징을 이용하여 대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대학교의 장점들을 통해 평생교육을 더 활발하게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을 대학교 중점으로 운영하게 될 때 그에 따른 장점으로는 먼저, 대학교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령인구가 줄어가는 현재 추세인 현재,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 대학교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교 인근은 교통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리에 관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교가 높은 수준의 지식이 오가는 장소인 만큼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장점들을 봤을 때 평생교육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대학교 입출입이 증가함으로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된다면,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의논함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뒷부분에서 언급되는 ‘대학교 환경 커뮤니티’ 조성을 고안하게 되었고 대학교에서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문화를 만드려고 유도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대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할 때, 대학교가 위치해있는 지역이 다양한 만큼, 여러 지역에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는 각 대학교에서의 평생교육을 강원도 태백시의 사례처럼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자 했으며 그에 따른 장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지역의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고유한 환경과 자원 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한다면, 지역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는 평생교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접점을 통해 다양한 연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 성별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면 단절되었던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번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을 운영할 때 필요한 강사진 등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자격증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을 진행할 때,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의 예시로 강원 인제군에서는 목공체험지도사와 요리와 플레이팅 전문가, 전남 곡성군에서는 생태텃밭 교육농교육과정과 생태놀이지도사 자격 과정이 그리고 부산 연제구에서는 마을교사와 숲생태놀이 지도사 양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교육과 관련된 지역특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환경교육과 연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한 지역의 특징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거창군 평생교육 중 하나인 **환경보드게임 자격취득과정**이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해 관심있는 거창군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자격취득과정의 예이지만, 환경보드게임을 개발하거나 즐길 수 있는 평생교육을 구성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학교를 중심으로한 그리고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서의 평생교육에 관해 살펴보았는데, ‘평생교육’이 생애 전 연령대를 의미하는 만큼, **연령대별로의 환경교육 평생학습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안해보았습니다.

먼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은 생태체험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을 경험하고 배우며, 더불어 개념적인 학습과 함께 실천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자연감수성을 지닌 환경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성인과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자연 체험, 자연 치유 프로그램, 교육, 기업,

일상 등 생활 속 여러 분야의 환경교육,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을 고안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회체제의 중심이며 많은 영향을 끼치는 성인들 또한 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관련한 평생학습을 진행할 때, **대학교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주민이 교류하게 되며 지역공동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저는 이것을 이용하여 대학교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학교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구성해보았습니다. 먼저 초기 구성에는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대학교 중 환경 관련 학과가 있거나 또는 교내 환경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해당 대학교의 대학생(청년)을 환경 커뮤니케이션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며 이때 위원회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도 포함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조성한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는 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생활, 환경문제에 관하여 논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되며 위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위치한 다른 대학교의 위원회와도 교류하며 지역의 상황을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학교를 통한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로는 첫번째, 지역의 다양한 주민이 지역의 생활, 환경 문제의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 두번째, 지역 내, 지역 간의 문제를 대학 간의 소통을 통해 해결의 효과를 기대해보았습니다. 대학교를 통한 평생학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평생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발견하며, 이때 평생 필요한 환경교육을 평생교육이 연령대별로 활발하게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대학교 환경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역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지역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남을 통해 생활과 환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필진

- 국가환경교육센터 김인호 센터장
- 김정인 과장
- 최대한 계장
- 김도현 주임
- 백연비 주임
- 김동구 주임
- 김재중 사원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층, 6층, 8층

☎ 02-3407-1510 🌐 www.keep.go.kr